

## 위성 전문가들에게 바란다



지난해말 전 세계는 새 천년과 21세기를 앞두고 희망과 기대에 찬 가운데서도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Y2K' 문제가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우리 생활 전 부문에 몰고 올 재앙에 대해 걱정을 넘어선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몇 가지 버그들이 나타났지만 재앙이라고 할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Y2K를 방지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전문가들의 철저한 대비와 헌신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전문가의 사명과 역할이 가진 중요성을 입증하는 가장 비근한 예일 것입니다.

새 세기가 개막한 지금 세계는 지식정보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업사회 구조와 고정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숨가쁜 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식정보 사회건설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이 부문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생활의 편의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가 있을 때마다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필요를 예측하고 가상의 세계를 꾸미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들 가상의 현상들이 기술의 필요를 만들어내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요컨대 전문가적 상상력만이 급변의 격랑에 휩쓸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우리 전문가들에게 지워지는 책무는 무겁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가들은 변화를 예상하고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변화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 또한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몰두한다는 것은 명예로운 동시에 즐거운 일입니다.

위성 보유 여부는 한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위성 주권'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듯이 위성은 과학기술력의 상징일 뿐 아니라 한 나라 국력의 지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주 공간의 활용도와 중요성은 커질 것입니다. 미래에는 위성 보유 여부가 상징이나 지표가 아닌 핵심적인 국가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는 당당한 위성보유국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성을 포함한 기간 정보통신 인프라 부문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전문인들이 그 동안 위성분야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에 바친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이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우리별 3호 위성을 성공적으로 띄워 올린데 이어 무궁화 3호 위성, 아리랑 1호 다목적 실용위성 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국이 정보통신 핵심인프라의 하나인 국내 위성통신 기반을 완비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구조에 접목시킴으로써 희망찬 21세기를 맞았습니다.

복지사회 건설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우리 전문인들에 의해 하나씩 구체화되고 실현될 때의 자부심과 기쁨은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며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세기를 슬기롭게 개척해 선진국에 진입하는 희망의 기운이 여러분으로부터 태동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위성산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참여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나라 위성산업의 발전을 누구보다 지극히 열원해 온 저는, 국내 위성통신·방송 및 우주산업과 우주과학기술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가 우리나라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는 두뇌집단으로 거듭날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